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미들웍

에릭 사볼

I

병사가 햇불을 올려 들었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가죽 접히는 소리가 났다. 전방을 살피는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햇불이 일렁이자 과수원 여기저기에서 그림자가 춤을 쳤다. 마치 검은 축수들이 별빛이 빠져나간 덤불 사이를 미끄러지듯, 그림자는 기이한 형태로 모습을 바꾸었다. 초가을답지 않게 찬 바람이 병사 위로 무성히 우거진 나뭇잎과 가지를 세차게 흔들자, 올라가미에 목이 매달린 시체 일곱 구가 느릿느릿 흔들렸다.

키 작은 떡갈나무에는 한 노인이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병사는 그 노인의 피 젖은 발 앞에 잠시 멈춰 섰다. 햇불을 올리자 당장이라도 뼈가 부러질 듯 가냘픈 시신의 형체가 드러났다. 햇불이 찢어진 옷 틈 사이로 검버섯과 아물지 않은 상처, 너덜너덜해진 핏줄을 비쳤다. 시신의 폭 꺼진 가슴팍에는 형겅 띠가 팔락이고 있었는데, 그 뒤로 언뜻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병사는 고개를 가까이 가져갔다. 햇불 사이로 시선을 고정한 채, 그는 조심스레 장갑을 벗고 그 형겅 끝을 두 손가락으로 집었다. 그는 햇불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가고는, 머리를 약간 기울이며 느슨한 형겅 띠를 가볍게 아래로 당겼다. 노인의 몸엔 칼로 새긴 것으로 보이는

붉은 선들이 복잡한 모양을 이루며 아래로 이어졌다. 가슴에서 시작해, 흉골을 지나, 배를 지나—

"해린저, 시체 옷 벗기는 건 그만두지." 숲가에서 한 남자가 크게 외쳤다.

병사가 뒤돌아 햇불을 내밀자 나무 사이로 어두웠던 길이 밝아졌다.

새로 온 남자는 자기 뒤통에 두 손을 올린 채 이를 보이며 웃었다. 검은 갑옷을 입은 탓에 어두운 수풀 안에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깊은 주름과 덩수룩한 수염 사이로 하얗고 가지런한 이를 드러낸 채, 거들먹거리며 젊은 병사의 곁에 와 멈춰 섰다.

해린저는 밧줄에 매달린 시신 쪽으로 몸을 다시 돌렸다. "스트렛벤저는 미쳤습니다." 그는 노인의 몸통에 난 상흔을 관찰하기 위해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스트렛벤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셨습니까?"

검은 갑옷을 입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도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절대 건드리지 말 것, 기억 안 나? 이것들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네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지." 그는 아랫입술을 질경 씹으며 노인의 몸을 골똘히 올려다 보았다. "스트렛벤저는 저 사람들의 피를 다 빼려는 거야. 따로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건드리지 마, 알겠어?"

해린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슬로 축축해진 허연 몸뚱이로 눈길을 옮겼다.

"그는 이 불쌍한 노인의 가슴과 배에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는 다른 손으로 횃불을 바꿔 들고 조사를 이어 갔다.

"그리고 피를 다 빼내고 있어요. 스트렛벤저는 작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건포도처럼 말리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칼로 문양을 새기다니 말이죠."

늦게 온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암만 해도 미들윅에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농부 넷, 술집 여자 둘, 산파 하나를 확실한 이유도 죄명도 없이 처형한 것만 하겠어?"

해린저는 시신의 배에 그어진 상흔을 따라 내려가다 시신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이 사람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꽃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는 한 손으로

시신의 허리끈을 풀고 만신창이가 된 바지를 내렸다. 상흔은 앙상한 양쪽 허벅지까지 이어져 있었다. 나뭇가지에 걸쳐진 올가미에서 신음 소리가 났다.

"적당히 하자고, 해린저. 사우스필드에 매음굴이 있는데, 순찰 끝내면 내가 구경 한번 시켜 줄게. 양심적으로 그 불쌍한 농부의 바지는 좀 입혀 놓자고."

"꽃 장수였어요." 해린저는 말을 정정하고는, 다 해진 반바지를 치켜 올리고 허리끈을 땀다. "스트렛벤저가 다른 시신에도 저런 상처를 새겨 놓았을까요?"

남자는 나무에 카악 침을 뱉고는 말했다. "넌들 아나? 스트렛벤저는 비밀투성이잖아. 오늘이 나흘째야. 우리가 죽인 사람이 일곱인데, 무슨 설명 한 마디 있었냐고?"

해린저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눈썹을 찡그린 채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과수원 안쪽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다.

"해린—" 검은 갑옷의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더니, 병사를 쫓아 숲 속으로 들어갔다. "제기랄, 해린저, 어찌 됐든 건드리는 건 안 돼, 알지?"

둘의 발소리가 잦아지고 해린저의 햇불이 수풀 속에 희미해져 갈 즈음, 어둠 속에서 두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달리아와 이스탄텐은 길에 서서 병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리를 가늠했다. 달리아는 원예용 가위를 허리춤에 쑤셔 넣고, 떡갈나무에 매달린 채 흔들리는 노인의 앙상한 시신 쪽으로 잼싸게 달렸다.

"망 잘 봐. 내가 바닥에 내려 놓을 테니." 그녀가 이스탄텐에게 말했다. 소년은 두 손가락을 목에 갖다 대고, 꾸르륵, 알겠다는 소리를 냈다.

달리아는 가위를 빼내 입으로 단단히 물었다. 그녀는 시체 아래 웅크리고 있다가, 나무 몸통 쪽으로 이동해 잡고 오를 만한 데를 찾았다. 이스탄텐의 눈이, 멀리 보이는 해린저의 햇불과 민첩하게 떡갈나무 꼭대기로 오르는 달리아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달리아는 나무 줄기를 따라 올라가미가 묶인 지점을 향해 신속히 움직였다.

과수원 길 멀리서 검은 갑옷 입은 남자의 쉼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리아는 가지에 한 팔을 두른 채, 입에 물고 있던 가위를 손에 쥐고 늘어진 밧줄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가위 날을 앞뒤로 움직이며 열심히 밧줄을 썰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게와 움직임 때문에 밧줄이 흔들리고 가지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다. 밧줄의 첫 번째 올이 푹 끊겨 나왔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손놀림을 더 빨리 했다. 밧줄이 점점 썰리면서 매달린 시체가 한쪽으로 늘어졌다.

이스탄텐이 두 손가락을 목젓에 대고 낮게 꾸룩 소리를 냈다. 달리아는 움직임을 멈췄다. 소년은 입으로 꾸룩 소리를 크게 내고는 어둡한 곳에 잽싸게 몸을 숨겼다. 그녀의 귀에도 해린저의 목소리가 들렸다. 길 저쪽 멀리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스탄텐!" 그녀가 가지를 꼭 붙잡은 채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끄, 소리를 내며 이를 꽉 물고 다시 밧줄을 썰기 시작했다. 햇불에서 나오는 빛이 수풀 사이를 통과해 길가를 비쳤다. 그걸 확인한 달리아는 더 필사적으로 줄을 썰었다. 근육에서 불이 나고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밧줄이 칼날에 조금씩 썰려 나가자 시신을 지탱하는 힘도 느슨해졌다. 해린저의 발자국 소리는 이제 가까운 데서 들려 왔다. 장화에 낙엽과 돌맹이 밟히는 소리와 현대 짐쇠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악을 쓰며 밧줄을 썰었다. 가위의 차가운 날에 밧줄이 한 올 한 올 끊겨 가던 그때, 해린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며 울려 퍼졌다.

"거기!" 그가 햇불을 흔들며 외쳤다.

달리아는 가만히 고개를 돌려, 눈을 가늘게 뜨고 햇불 사이로 병사의 윤곽을 살폈다. 그녀의 심장이 가슴 속에서 방망이질 쳤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만히 나뭇가지만 붙잡은 상태로 몇 초가 흘렀다. 해린저가 칼자루에 왼손을 올린 채 천천히 다가왔다. 달리아는 침을 꿀꺽 삼키고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몸을 안정시켰다.

이쪽 편 길에 있는 나무는 너무 뻣뻣했다. 하지만 달리아가 가지에서 뛰어내려, 제대로 착지해 길 저편 수풀을 향해 내달린다면, 그녀와 이스탄텐은 병사가 쫓을 생각을 하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착지한다면, 만약 고꾸라지거나 발목을 접질리기라도 한다면?

해린저의 형체가 다가오는 그 짧은 순간, 달리아는 가능한 모든 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 선택하지 못했고, 가지를 꼭 붙잡은 채 병사가 나무 밑동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한 팔을 가지에 걸치고 다른 한 손으로 가위를 짊 쥐었다. 그녀가 몸에 잔뜩 힘을 주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해린저는 그냥 나무를 지나쳤다. 달리아는 그가 든 햇불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둑한 과수원 안에서 햇불이 밝힌 건 길 저쪽 30여 미터 밖에 서 있는 한 왜소한 남자였다.

"저기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해린저가 소리쳤다.

그 작은 남자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그는 그저 무심히 고개를 젓더니 손을 만지작거리며 올라미에 매달린 젊은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해린저는 발걸음을 서두르며 다시 외쳤다. 남자는 슬픈 웃음을 짓고는 그 시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아내라우." 해린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남자의 어깨를 토닥인 뒤, 그를 데리고 과수원 밖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달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꽉 잡고 있던 가지를 놓고, 버팀대가 되는 가지를 붙잡았다. 그녀의 머리와 옷이 바람에 헝클어졌다. 매달려 있던 시신이 바람결에 회전을 했고, 밧줄에서 마른 소리가 났다. 이스탄텐이 덤불에서 어기적 나와 달리아에게 손을 흔들고는, 시신을 가리켰다.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끼익, 뒤틀리던 밧줄이 탁 하며 끊어졌고, 시신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다. 나뭇가지가 격렬히 흔들리며 달리아를 시신 위로 내동댕이쳤다. 이스탄텐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소년은 달리아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기다리더니, 시신의 양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수풀 쪽으로 끌기 시작했다.

달리아는 가위를 허리춤에 쑤셔 넣은 뒤,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노인의 발을 잡았다. "머리 안 부딪히게 조심해."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힘을 합쳐 시체를 끌고

숲을 지나 미들윅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물 흐르는 소리와 까마귀 울음만이 적막한 밤의 유일한 친구였다.

II

할아버지는 거죽만 남은 상태였다. 달리아는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냅마를 벗겼다. 그녀는 할아버지 옷을 한 조각 찢어 물에 적신 다음, 그의 가슴과 얼굴에 묻은 흙을 조심스레 닦았다. 그의 몸엔 기이한 문양이 잔혹하게 새겨져 있었고, 달리아는 그 상흔 주위를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시신을 침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가 할아버지를 침대에 누이고 흠이불을 그의 거칠한 턱까지 올려 덮고 나니, 밖에는 먼동이 트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이마에 짧게 입맞춤을 하고 오두막 뒤뜰에 있는 창고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위를 놓고 삽을 들었다. 그리고는 마을 외곽, 과수원 반대편에 펼쳐진 숲으로 향했다. 지난밤 일로 정신이 멍해진 달리아는 여명을 머금은 별판을 걷는 도중,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삽에 자꾸 눈길이 갔다. 할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삽이지만, 농기구라기보단 장식품에 가까웠다. 어두운 빛깔의 나무로 만들어진 삽자루 둘레엔 정교한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상형문자는 상아로 만든 삽날 부위까지 이어졌다. 삽날은 폭이 좁고 끝이 뾰족했으며, 꽃과 덩굴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삽은 아름다운 연장이었지만, 달리아는 12년을 살아 오며 할아버지가 그걸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산 위로 해가 막 모습을 드러낼 무렵, 그녀는 빈터를 찾았다. 가로 1.8m, 세로 1.2m. 그녀는 측정해 온 길이를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리고 상아로 만든 삽날을 흙 바닥에 쑤셔 넣고, 삽에 담긴 첫 흙을 다리 사이로 던져 버렸다. 그녀는 아침 내내 흙을 파헤치며, 주위 식물들이 다치지 않도록 뿌리를 피해 한 삽 한 삽 조심스레 할아버지의 무덤을 팠다.

정오가 되어서야 달리아는 잠시 쉬려고 구멍에서 나왔다. 머리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고, 얼굴과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그녀는 눈을 감고 누웠다. 시원한 숲 바람 속에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휴식은 오래가지 않았다.

후드득 발자국 소리와 수풀 헤치는 소리에, 달리아는 펄쩍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휘청거리며 일어서 삽을 들었다. 쌓아 올린 흙더미를 중심으로,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숲 주변을 살폈다. 움직이는 그림자와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스탄텐이 덤불 속에서 요란하게 튀어나왔다. 달리아는 깜짝 놀라 휘청였고, 구멍에 빠질 뻔하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소년은 쪼그린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달리아는 삼을 바닥에 꽂고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무슨 일이야?"

소년은 가슴을 들썩이며 그녀를 올려다보더니 손가락으로 마을이 있는 서쪽을 가리켰다. 다른 한 손으로는 두 손가락을 목에 대고 낮게 꾸르륵 소리를 냈다.

달리아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땀에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진 눈을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았어?" 소년은 씩씩 숨만 몰아쉬는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가락은 여전히 미들웁을 가리키고 있었다.

달리아는 벌떡 일어나 수풀 속으로 뛰어들었다. 잔가지와 덩굴이 그녀의 머리와 옷에 엉겨 붙었다. 바위와 뿌리에 걸려 휘청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고 마을로 내달렸다. 지친 것도, 가슴에서 불이 나는 것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팔다리를 휘젓고 가쁜 숨을 내쉬며 숲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담벼락을 뛰어넘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벌판을 내달렸다. 고개를 숙이고 팔을 힘차게 흔들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거리를 가로지르고 사람들, 수레, 마차, 짐 나르는 짐승들

사이사이를 달렸다. 집 앞 모퉁이를 돌아 드디어 할아버지의 오두막이 보였다.

길은 텅 비어 있었다. 거리 입구에 덜렁 서 있는 오두막은 조용했다. 안도감이 물밀듯 몰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소녀는 자갈 길바닥 위에 주저앉았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 기진맥진한 달리아는 숨을 헐떡이며 놀란 눈으로 오두막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길바닥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림자가 너무도 크고 넓었기에 그녀는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라 생각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달리아는 뒤를 돌았다.

스트렛밴저의 그림자가 그녀를 뒤덮었다. 그의 몸은 떡갈나무같이 육중했으며 왕실의 로브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은 어두운 두건 속에 가려져 있었으나, 각진 턱이 마치 벼랑 끝에 걸린 바위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험령한 의복이 그의 거구를 가려 주었지만, 배에 두른 허리띠에서 그의 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 가죽으로 만든 그 허리띠는 두껍고 부드러웠으며 윤기가 흘렀다. 뽑아서 늘어뜨려 놓으면 자기 키보다 클 거라고 달리아는 생각했다. 주교의 육중한 몸 뒤에는 여러 병사들이

위풍당당한 자세로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엔 해린저와 검은 갑옷을 입은 동료도 보였다.

그는 우드득 소리를 내며 몸을 숙이더니 손으로 달리아의 팔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가볍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꼬마야." 그의 목소리에선 조바심이 똑똑 떨어졌다. "할아버지, 집에 계시니?"

달리아는 자신의 눈을 가리던 머리 한 올을 쓸어 올렸다. 스트렛밴저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소녀를 압도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다. 가까스로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노려보자, 다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쪽 숲을 가리키며 겨우 입을 뗐다. "저 과수원에 있어요. 거기로 데려갔잖아요."

"아주 똑똑한 대답이구나, 꼬마야. 하지만 틀렸어. 네 할아버지는 어젯밤에 어딘가로 가버렸거든." 그의 눈이 오두막 문을 향해 꺾였다. "하지만 죽음은 치명적인 약점을 남기지. 아마 멀리는 못 갔을 거야." 그는 흠 문은 달리아의 소매를 두 손가락으로 잡고는,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상의와 바지에 온통 엉겨 붙은 흠을 훑었다. 그가 씩 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를 봤니?"

"아뇨, 제 생각엔..."

스트렛벤저는 오두막을 보며 고덕였다."그럼, 집 안을 둘러봐도 괜찮겠지?"

달리아는 조심스럽게 집 쪽으로 몇 발자국 움직여 주교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났다."아니요."

"버르장머리하고는!" 그는 농을 던졌다. 두건 속 어두운 곳에서 끈적하고 묵직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돌아서서 전열을 갖춘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오두막을 향해 퍼져 나갔다. 스트렛벤저도 길에 서 있던 작은 소녀를 무시한 채 병사들을 뒤따랐다.

울컥,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달리아의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이건... 이걸 옳지 않아! 당신이 그분들한테 한 짓,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은 옳지 않다고!"

스트렛벤저가 병사들에게 멈추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반쯤 돌아서서 어깨 뒤로 달리아를 쳐다봤다."양들이 목자의 뜻을 어찌 알리오. 그냥 쉬거라. 우린 이곳을 청소하는 거란다."

마음속에서 부글대는 달리아의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되어 그녀의 말에 독기를 더했다."당신은 틀렸어."

그가 커다란 어깨를 으쓱하며 중얼거렸다. "어린애가 무슨 정치를 알꼬?" 그가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철갑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 울리며 병사들이 오두막을 둘러쌌다. 그들이 검을 치켜들고 전투 대형을 갖추는 사이, 한 병사가 오두막 문을 발로 차 열었다. "옷장을 수색해라. 다락, 화장실도 확인하고. 시체는 여기 있다.

반드시 다시 가져간다."

병사들이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피!" 스트렛벤저가 병사들의 등 뒤로 외쳤다. "그놈한테선 아직 피가 날 거야. 검게 변한 피를 찾아라."

접시 깨지는 소리, 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거리에 서 있는 달리아의 귀까지 들렸다. 스트렛벤저는 잔디밭에 서서 부하들이 오두막 수색하는 걸 바라보았다. 그는 해를 등지고 팔짱을 낀 채 뒤통치를 불안스럽게 들썩였다.

떨어진 땀방울이 달리아의 눈 안으로 들어갔다. 분노로 몸이 굳어버린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땀의 소금기 때문에 눈이 흐릿하고 쓰라렸지만, 그녀는 무거운 로브를 걸친 거구에게서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할아버지의 집을 들쑤시고 있다. 그녀의 집을 들쑤시고 있다. 그녀의

추억이 담긴 곳, 그녀에게 위안이 되어준 장소, 그녀가 집이라 부를 수 있는 단 한 곳이 무참히 짓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달리아는 분노로 몸서리쳤다.

소녀는 길바닥에서 뾰족한 돌멩이를 하나 잡아 뺐다. 그녀는 이를 짝 물고 미간을 좁힌 채, 스트렛벤저의 등을 노려봤다. 돌멩이를 짝 쥐고,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저 거구의 허리띠 바로 밑, 엉치뼈 지점이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빨리했다. 발소리를 들었을 법도 한데, 스트렛벤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와 팔 내밀면 닿을 거리에 이르자, 달리아는 돌을 들었다. 돌을 잡은 손에 힘을 짝 주고 목표 지점을 노려봤다.

하지만 내려치기 직전, 해린저가 휘청이며 문밖으로 나왔다. 그의 칼은 칼집에 들어가 있었고, 손가락은 베인 상처와 파편투성이었다. "노인의 이불에서 피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주교의 입술이 살짝 떨어졌다 "피?" 마치 두건 속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그래?"

해린저는 스트렛벤저와 눈을 마주치는 대신 거구의 다리 사이 땅바닥을 쳐다봤다. "하지만 시신은 없습니다.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달리아의 미간이 찡그러졌다. 그녀는 돌을 떨어뜨리고 천천히 뒷걸음질쳤다. 스트렛벤저는 잠시 아무 말 없다가, 뒤를 돌아 소녀를 쳐다봤다. 짧고도 긴장된 순간, 그의 눈빛이 그녀를 차갑게 파고들었다. 그의 감정은 두건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알 듯 모를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교는 중얼거리며 소녀를 밀치고는 마을 중심가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III

마지막 병사까지 다 떠나자, 할아버지의 빈 침대 곁엔 달리아뿐이었다. 옷가지는 엉망진창 섞이고 옷장은 온통 뒤집어져 있었다. 먼지투성이 이불을 몸에 두른 달리아의 모습이 마치 지저분한 고치 같았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울었다. 그리고는 눈물범벅이 된 눈으로 난장판이 된 집 안을 살폈다.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웅크린 상태로 두어 번 뒤돌아 할아버지의 앙상한 시신을 찾아보았다. 마른 피와 때가 묻은 할아버지의 침대엔 그가 누웠던 좁은 자리가 아직 움푹 파여 있었다. 하지만 시신은 폭풍 속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멀리서 고양이 한 마리가 길게 울었다.

달리아는 더러운 이불로 눈물을 훔치고 힘겹게 일어섰다. 그녀는 잡동사니를 헤치고 창가로 가 커튼을 걷었다. 따스한 햇살이 창을 지나, 침실을 휘도는 희미한 먼지를 비쳤다. 그녀는 낮이 나간 채 비틀거리며 방 구석에 있는 버찌나무 서랍장으로 가 온통 뒤섞인 옷가지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정돈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미동하지 않았고 머릿속은 고요한 정지 상태였다. 오래된 수첩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색 바랜 반지 몇 개... 그녀는 할아버지의 물품을 챙겨서 그것들을 벽면에 놓인 서랍장 안에 모두 넣었다.

그녀는 방 반대편 구석에 구겨져 있던 바지 밑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의 변색된 표지는 세월을 말해주는 듯 쪼글쪼글하고 거칠었으며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안에는 부스러질 것 같은 노란 허처럼 속지가 무수히 달려 있었다. 일기장의 거친 표지 안쪽에는 처음 보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는데, 어딘지 낯이 익었다. 할아버지의 몸에 난 상흔과 비슷해 보였으나, 달리아가 알 수 없는 언어였다. 종이에선 뒤죽박죽 휘갈겨 쓴 단어와 기호가 여백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다. 첫 장에서 끝 장까지 그런 식이었다. 일기장 뒤쪽에는 꽃이나 풍경을 간단히 그린 스케치가 있었는데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긴 힘들었다.

문 바로 밖에서 고양이의 앙칼진 울음이 다시 들려왔다. 뒤이어 정신없이 무언가를 긁는 소리가 달리아의 귀에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일기장을 서랍장 옆에 내려 두고 조심스럽게 방을 가로질러 복도를 뚝뚝히 살폈다.

"누구세요?" 그녀가 말했다.

순간, 오두막에 정적이 흐르더니, 맹렬한 고양이 울음 소리가 거실 끝, 부엌에서 다시 들려왔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모서리를 지나 텅 빈 부엌의 차가운 돌바닥에 발을 들였다. 산산조각 난 장식용 접시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식탁은 뒤집어진 채 벽 쪽에 붙어 있었다. 앙칼진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더 절박해졌다. 사람이었다.

달리아는 헉 소리와 함께 음식 저장실로 뛰었다. 그녀는 넘어진 쌀통과 감자통을 밀어 치우고는, 마룻장 모서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네모난 바닥 판 한 장을 잡아 뺐다. 그 아래, 저장실 지하 구멍에는 이스탄텐이 앉아 있었다. 그렇그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는 그 소년은 할아버지의 시신을 몸 위에 걸치고 있었다.

달리아는 활짝 웃었다. "거기 낀 거야?" 이스탄텐은 으르렁거렸다. 그는 구멍 바닥에서 위로 손을 뻗었다. 달리아는 이스탄텐의 손을 잡았고, 들은 힘을 합쳐 시신을 옆으로 밀었다. 소년은 구멍에서 빠져나왔고, 소매로 볼에 남아 있는 눈물을 훔쳤다. 달리아는 잠시 구멍을 내려다 보며, 할아버지의 구겨진 시신을 살펴보았다.

"할아버지... 아프실까?" 그녀가 물었다. 소년은 눈알을 굴리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할아버지는 어색한 자세로 누워 있었다. 목은 구부러지고 두 팔은 비좁은 구멍 안에 뒤틀려 있었다.

"할아버지를 이렇게 두긴 싫지만,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 같아."

이스탄텐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꾸룩 소리를 냈다. 달리아는 바닥 판을 제자리에 다시 깔고 이스탄텐을 지나쳐 부엌으로 이동했다. "넌 여기 남아서 감시할래?"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사납게 고개를 저었다.

달리아는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우린 무덤을 마저 파야 돼. 오늘 밤에."

그녀는 복도로 나가 문으로 향했다.

이스탄텐은 가볍게 툭툭거리며 그녀를 따랐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집을 채웠다.

IV

달리아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무덤에서 또 한 삽을 퍼냈다. 팔이 아팠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 정강이와 발목을 쿡쿡 찔렀다. 눈꺼풀은 부어 올라 무거웠고, 피로가 천근 만근 그녀의 연약한 몸을 짓눌렀다. 늦은 오후의 해가 잠시 먹구름 뒤로 숨자, 숲 주변은 더욱 추워졌다.

이스탄텐은 주위를 순찰했다. 얼음장 같은 가을 바람에 이가 덜덜 떨리고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는 두 팔을 상의 안에 싹 집어 넣은 채, 몇 시간 동안 숲 경계를 돌며 수풀에서 무슨 소리가 안 나는지 또 움직임은 없는지 감시했다.

해가 질 때까지 두 아이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이스탄텐이 순찰을 하다 나무 뿌리에 신발이 걸렸다. 소년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숲 바닥의 낙엽과 자갈에 얼굴을 처박았다. 그는 셔츠 안에 엉켜 있던 두 팔을 빼고 허둥지둥 일어섰다. 눈 밑이 흙투성이가 되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에 비친 켁한 눈동자와 축 처진 자세에서 소년이 극도로 지쳤음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무덤 속에 있던 달리아는 웃으면서 떨리는 손을 소년에게 내밀었다. 이스탄텐은 비틀거리며 무덤으로 가 그녀의 손목을 짝 잡고 끌어올렸다.

달리아는 무덤 가장자리, 아직 파헤치지 않은 땅에 뽀족한 삽날을 꽂았다.

그녀는 이스탄텐을 끌어안고 그의 지저분한 볼에 입을 맞췄다. "도와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그녀는 지친 몸을 소년에게 기댔다. "이제 집에 가. 가서 잠 좀 자."

이스탄텐은 뒤로 물러서서 목에 엄지를 대고 불쾌하다는 듯 그르렁 소리를 냈다.

"난 괜찮아." 그녀가 소년을 안심시켰다. "여긴 다 됐어. 충분히 깊게 팠거든."

그녀는 숲가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추웠던지 자신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소년은 그녀를 잠시 골똘히 보더니, 바람에 실려 사라질 정도로 낮게 꾸룩 소리를 냈다.

"난 좀 앉아 있을게." 그녀는 소년에게 가라고 손짓했다. "어서 가 봐. 내일 보자."

이스탄텐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돌아서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달리아는 한참 동안 고요한 바람과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다. 불편해서 잠이 안 오긴 했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떡갈나무의 거친 껍질에 머리를 기댄 채, 다리에 힘을 빼고 차가워진 팔을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속으로 일, 이, 삼,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천까지 세었을까, 어떤 목소리가 그녀를 방해했다.

"이렇게 추운 데서 잠이 오니?"

달리아가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 주변에
보이는 모든 나무와 가지, 움직이는 그림자를 눈으로 쫓았다. 껌껌한 숲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웃는 입이었다. 완벽할 정도로 가지런한 치아였다. 그가
다가오자, 그 모습이 점점 은 윤곽과 형체를 이루더니, 손이 닿을 거리가 되자
밤하늘처럼 검은 금속 갑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가 되었다.

과수원에서 본 해린저의 친구였다.

달리아가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병사는 쇠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그녀를 지나쳤다. 그러고는 무덤
가장자리에 서서 말 없이 두 손을 허리 뒤에 올린 채 빈터를 유심히 둘러보았다.
잠시 후, 자리에 앉더니 크게 한숨을 쉬었다. "누구시니? 그 노인 말이야."

달리아는 선뜻 말 못 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남자의 등만 멍뚱멍뚱
바라봤다.

그는 어깨 뒤로 그녀를 돌아 보더니 눈썹을 치켜들었다. "스트렛벤저가 찾던 시신 말이야. 누구냐고?"

둘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긴장감이 맴돌았다. "제 할아버지요."

"그냥 할아버지는 아니지. 확실해. 시신을 찾느라고 허비한 시간이 얼마데." 한 줄기 거센 바람이 굉음을 내며 빈터를 훑고 지나갔다. 두 사람 위에 있던 나뭇가지와 잎이 흔들렸다. "내가 듣기론 농부셨다고 하던데."

"꽃 장수요." 달리아가 정정했다. "마을에서 꽃을 파셨어요."

병사는 시선을 고정시킨 채, 어둠 속에 있는 그녀를 관찰했다. "또 다른 건?"

"여행을 다니셨어요."

"여행?"

달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수 일도 하셨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도 잘 해주셨어요. 잘 웃으셨고, 동물을 사랑하셨고, 일찍 일어나셨고, 또..."

말이 막혔다. 달리아는 떨리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또 할아버지는 절 보살펴 주신 단 한 분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되실 분이 아니에요."

검은 갑옷의 병사는 다시 돌아서서 무덤가에 엉덩이를 걸쳤다. "착한 분이라..." 그가 중얼거렸다. 그는 파인 구멍을 향해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꼬마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흰색 검은색으로 딱 나눌 수가 없어. 실상은 추잡하고 탁한 회색이지.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친절한 꽃 장수는 아무 이유 없이 교수형을 당하고, 범죄자들은 왕실의 옷을 걸치고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지."

그는 무덤 가장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하지만 현실에선 누가 착하냐 나쁘냐를 가릴 시간이 없단다." 그는 말을 이어 갔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현실에서 중요하지 않아. 현실은 오직 진실에만 관심이 있지. 여행을 즐기며 쾌활하게 이야기를 해 주던 네 할아버지는 비밀을 가슴에 잔뜩 품은 채 죽었고, 스트렛벤저는 그 비밀이 그냥 비밀로 남길 바라고 있어."

"과수원에 할아버지의 목을 매달고 몸에 문양을 새겨서요?"

"너도 알게 되겠지만, 로브를 걸친 그 덩치가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그 문양은 결계야, 일종의 자물쇠지. 네 할아버지가 알고 있던 어둠의 수수께끼가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자물쇠."

달리아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제가 여기 있는진 어떻게 아셨어요?"

"오두막에서부터 널 따라왔지. 네가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갈 줄 알았거든."

"미안하지만 실망하셨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남자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내가 미안하지. 왜냐하면 너

할아버지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은 내가 널 스트렛벤저에게

다시 끌고 가야 한다는 말이고."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가자, 시간 없다."

달리아의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기진맥진했던 몸에 공포와 분노가 엄습했고,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식용 삽을 빼어 휘둘렀다. 뾰족한 삽날이 남자의

얼굴을 긁었고, 그의 피부와 살점이 뼈에서 뜯겨 나갔다. 상아가 두개골에 부딪히는

순간, 날카로운 충격음이 빈터에 울려 퍼졌다. 병사는 옆으로 휘청거리다 빈 무덤

속으로 고꾸라졌다.

V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 미들윅은 희미한 빛으로 일렁였다.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과 불길이 마을을 휘감았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거리와 벌판,

논밭을 행군했다. 스트렛벤저의 부하들은 창문을 부수고 문을 박차며 집에 불을

질렀고, 불길 이글대는 소리와 살려 달라는 절규가 시린 밤하늘에 퍼져 나갔다.

그을린 잠옷 바람으로 쥐떼처럼 거리로 몰려 나온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물건을 부여잡은 채 우왕좌왕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스트렛밴저의 목소리가 전장을 압도하는 전투 나팔처럼 울려 퍼졌다. "놈들에겐 상처가 있다! 상처를 찾아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주교를 스쳐 지나갔다. "룬 문양을 찾아 그들의 몸을 불로 정화해라! 피가 나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

달리아는 몸을 숙이고 별판을 지났다. 매운 연기내가 눈을 찔렀다. 그렇게 엎드린 자세로 마을 빙 둘러 마을 끝자락에 이르자, 높이 자란 풀밭 너머로 할아버지의 오두막이 보였다. 그녀는 근육에 남은 마지막 힘을 짜내 집으로 달렸다. 그리고 부서진 문을 열었다. 전속력으로 복도를 지나 부엌에 들어서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깨진 접시 사이로 나동그라졌다. 다리는 차가웠고 서 있을 힘도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음식 저장실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설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할아버지를 미들웁 밖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녀는 마음을 먹었다.

달리아는 넘어진 음식 통들 사이로 굴러 들어가, 느슨한 바닥 판을 잡아 빼고 구멍 안을 들여다 보았다. 코를 찌르는 썩은 내가 영킨 뉘시 바늘처럼 그녀의

목구멍을 턱 막았다. 가슴에서 격렬한 울음이 솟구쳐 올랐고 달리아의 몸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구멍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스탄텐?" 그녀가 외쳤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달리아는 저장실 바닥에 널브러진 접시 조각과 부서진 나무 파편, 돌바닥 파편 사이를 손으로 이리저리 더듬기 시작했다. 주변 잔해 속에서 나이프나 포크, 큼직한 접시 파편을 찾아 문밖으로 나갈 때 휘두를 요량이었다. 하지만 부엌 너머 복도에 놓인 원예용 가위를 발견한 달리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가위는 손잡이에서 칼날까지 피범벅이었다.

갑자기 벽이 햇불 빛으로 환해지더니, 무거운 갑옷을 구부정하게 걸치고 저장실 입구로 들어서는 해린저의 모습이 달리아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햇불을 비춰 그녀를 확인하고는 부엌 쪽으로 몸을 젖히고 크게 외쳤다. "찾았다! 그 꼬마가 여기 있다."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해린저가 달리아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그녀는 빈 구멍 쪽으로 물러섰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갈라진 쉼 소리가 흘러 나왔다.

"난생 처음 보는 일."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시체 여섯 구도 사라졌어."

"사라져요?"

"그래, 흔적도 없이."

"제 할아버지는요?"

밖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해린저의 손이 칼자루를 향했다. 그는 다시 달리아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나가야 돼."

그녀는 잠시 거친 숨을 내쉬며 멍하니 그를 쳐다봤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해린저가 다가와 그녀를 번쩍 들었다. 그는 저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고, 달리아는 두 팔을 그의 목에 둘렀다. 접시 파편과 나이프, 포크가 젊은 병사의 장화에 밟혀 으스러졌다. 둘이 막 모서리를 돌아 복도로 들어섰을 때, 스트렛벤저의 크고 주름진 손이 해린저의 가슴 갑옷을 막아 세웠다.

"내려 놔." 스트렛벤저가 낮게 으르렁댔다. 그는 오두막 지붕 아래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있었다. 그의 로브는 앞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한쪽 귀엔 피가 흘러 말라 붙어 있었다.

해린저는 망설였다. 스트렛벤저의 손이 그의 얼굴을 후려쳤고, 해린저는 부엌으로 휘청이며 밀려났다. 달리아를 잡고 있던 손이 풀리면서 그녀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교의 육중한 몸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한 손을 로브 안주머니에 넣더니 휘어진 단검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이 마치 다섯 마리 앙상한 뱀처럼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가 달리아 쪽으로 육중한 몸을 기울이자 등과 무릎에서 두둑 소리가 났다.

주교가 그녀의 얼굴에 뜨거운 숨을 뿜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 잘 몰..."

스트렛벤저가 휘두른 차가운 단검 날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달리아는 움찔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말해!" 그가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옷을 한 움큼 잡아 치켜 들었다. 방 가장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린저의 파리한 입술이 벌어졌다. 주교는 단검을 달리아의 목에 갖다 댔다.

소녀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입술이 일그러지고 혀가 뒤로 말렸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피를 할아버지의 꽃밭에 뿌려줄까?" 스트렛벤저가 날카롭고도 음산하게 속삭였다. "네가 대답을 안 하면, 이 촌구석을 엮어 버릴 거야. 네 추억을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린다고."

"난..." 칼날이 달리아의 목을 짓누르자 그녀가 움찔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스트렛벤저의 눈빛은 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어떤 속임수도, 허풍도 없었다. 하지만 악의도 찾을 수 없었다. 그 거구의 커진 동공 속엔 공포와 절박한 두려움뿐이었다. "숲이요. 방앗간에서 동쪽으로 가면 빈터가 있어요. 거기 파 놓은 무덤이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 안에 있어요."

스트렛벤저는 칼을 든 손으로 해린저를 가리켰다. "가!" 그가 소리치자, 젊은 병사는 황급히 거실을 지나 집 앞문으로 달리며, 거리에 있던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저 좀 내려 주세요." 달리아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주교는 부역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니, 그렇게 안 되지." 그는 얽은 웃음을 지으며 벽을 둘러보았다. 그는 달리아를 손에 든 채, 복도를 지나 집 안쪽으로 들어갔다. 주위에 보이는 문은 모두 열었다. "아직 벌을 받으려면 멀었어, 꼬마야. 우린 지금 네가 싸지른 쓰레기를 치우는 거야."

그는 지하실 문을 열었다. 가파른 계단이 마치 시커먼 아가리 속의 들쭉날쭉한 혀처럼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내 금방 돌아오지." 그가 약속했다. "거짓말이 얼마 불경한 것인지 알려 주마."

한순간 어둠이 덮치더니, 달리아는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쳐졌다. 지하실 바닥으로 구르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세상이 핑핑 돌았다. 그녀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돌바닥에 부딪혔다. 스트렛벤저가 문을 닫고 걸어 잠그자, 계단 맨 위로 비치던 한 줄기 빛이 사그라졌다.

어두운 밤, 미들웍을 휘감은 불길 속에서 이웃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벽을 통해 희미하게 전해졌다. 지하실 구석에서 쥐들이 요란스럽게 움직였다. 달리아는 할아버지의 작업대가 생각났다. 그녀가 어둠 속에 모습을 감춘 작업대를 향해 조금씩 몸을 움직이자, 날카로운 고통의 비명과 함께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가 입에서 새어 나왔다.

그녀는 손을 위로 더듬거리며 작업대 위의 촛대를 잡았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촛대를 몸 쪽으로 가져온 뒤, 공구 사이로 더듬더듬 불꽃을 일으키는 쇠막대를 찾아냈다. 달리아는 촛대를 바닥에 대고, 손에 쥘 쇠막대를 바닥에 굽었다.

불꽃이 어둠 속 사방으로 튀었다. 금속을 쥐 손가락에는 감각이 없었지만, 그녀는 금속을 굽고 또 굽었다. 마침내 심지에 불이 붙었다.

그녀는 그 작고 눈부신 불꽃 앞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눈이 불빛에 적응하는 동안 촛농이 촉수처럼 그녀의 손등을 타고 흘렀다. 잠시 후, 그녀는 초를 들고 희미하게나마 불빛이 닿는 지역을 살폈다.

촛불은 작업대, 책장, 계단 옆 상자 등 지하실 구석구석을 비쳤다. 지칠 대로 지친 달리아는 말라 비틀어진 한 노인이 반대편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그냥 지나칠 뻔했다. 그 남자의 어깨선과 머리 선... 모습은 낯이 익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할아버지의 거죽을 걸친 것처럼 어딘지 낯고 해진 느낌이었다. 흰자위뿐인 그의 핏발 선 눈알은 촛불로 번뜩였고, 그의 입은 찢어진 형겍처럼 덜렁였다. 그의 손과 발은 관절이 빠진 채 늘어져 있었다. 그가 그녀가 시선을 느끼고 움찔했다.

달리아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 생물은 으르렁거리며 느릿느릿 다가왔다. 창백한 룬 모양의 상흔이 가슴에서 허벅지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물러섰다. 숨이 가빠지고 턱턱 막혀 왔다. 어둠 속에는 여섯이 더 있었다. 모두 느릿느릿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뒤틀린 얼굴에서 인간의 것이라 볼 수 없는 소리가 흘러 나왔다.

"할아버지?" 그녀가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짹그렁, 촛대가 바닥에 떨어졌다.